

한국고전문학과 샤머니즘

유 욱 례

YU Yuk-Ry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Shamanism." *Literature and Religion* 20.3 (2015): 111-33.

Abstract: Shamanism fascinates the mental culture of people even in the age when modern science such as quantum mechanics has advanced. In our country, shamanism exists as an archetype of the unconsciousness, which governs our mental world as a sort of primitive religion. It has been used as a literary material in an infinite number of stories as an unconscious archetype since ancient times, and reproduced in poetry, folk tales and classical novels. Shamanism as a literary material is characterized by collective Magic in "Gujiga." Various aspects of shamanism are presented in "Dosolga," "Hyesungga," and "Wonga." *Danggeumaeki* and *Barigongju* have been inherited as *Seosamuga*. Thus, shamanistic literature has made contributions to the creation of novel, which is a representative mode of narrative literature. In ancient novels, popular beliefs were used as material for novels with a form of shamanism along with Confucianism, Buddhism, and Zen Buddhism. In modern novels, female shamans were reduced to witches who executed evil practices.

Keywords: Shamanism, Poetry, Folk Tale, Primitive Religion, Collective Unconsciousness

Notes on the Contributor:

YU Yuk-Rye is Assistant Professor of the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at Chosun University.

Email: yy9730@chosun.ac.kr

I. 들어가는 말

샤머니즘은 민간 토착 신앙으로써 고대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의 정신문화를 지배하는 원시종교이다. 샤머니즘은 맨 처음 기원이나 축원으로 시작되었지만, 종교적 성격을 띠면서부터 민간신앙으로 성장했다. 그 이후에 샤머니즘은 백성들의 신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현재까지 민간신앙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 원시종교는 다른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백성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칠 때에 그 종교의 원리를 수용하여 더욱 구조화되고 토착화되었다. 그 결과로 샤머니즘은 오늘날까지도 타종교의 하층구조에 깊이 파고들어 습합작용(糺合作用)을 하고 있다.

샤머니즘은 한국인의 정신을 지배하여 우리 문학의 시원적 토대의 배경을 형성하면서 문화적 창조력의 원동력이 되었다. 샤머니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전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문학작품의 배경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三國志 魏志 東夷傳)은 샤머니즘이 고대 부족국가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샤머니즘의 기원은 상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샤머니즘은 한국 고유의 토속신인 속신으로 존재하였다. 그 이후에 샤머니즘은 외부에서 외래신이 전래되어 각 지역의 속신과 결합되어 토착신앙으로 발전하였다.

샤머니즘은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정신적 원형을 유지하면서 면면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샤머니즘은 단군신화의 신단수에서 시작된다. 단군신화의 신단수는 무의식의 원형이다. 고대시가는 샤머니즘을 집단무의식의 식으로 제시한다. 또한 설화 문학은 샤머니즘을 주몽신화와 바리공주와 같은 영웅의 일대기로 재현한다. 바리공주는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여 영혼의 인도자로 등극한다. 고소설에서 샤머니즘은 주인공이 개인화와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어 흑세무민하는 인물의 양상으로 변모한다. 이처럼 고대시가와 설화문학, 고소설은 주인공은 집단무의식을 발현하여 샤머니즘적 요소를 제시한다.

최근에 고전문학과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는 작품의 개별적인 연구로 이루어져왔지만, 이 글에서는 통시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는 샤머니즘과 현대문학과의 관련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최근경향과 달리 고전문학과 샤머니즘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일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민족의 집단무의식이 반영된 샤머니즘이 한국의 고전문학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작품의 배경뿐만 아니라 작품의 주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러한 주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고전문학 작품들 가운데 ‘샤머니즘’의 양상이 부합된 작품들 「구지가」, 「도솔가」, 「혜성가」, 「원가」, 『당금애기』, 『바리공주』, 『한중록』, 『구운몽』, 『김인향전』, 『운영전』을 선별하여 분석할 것이다.

II. 샤머니즘과 집단무의식

1. 원시종교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고대시대부터 하늘에 자신의 소원을 빌고, 신을 믿는 관습이 있었다. 샤머니즘(Shamanism)은 원시종교의 한 형태로서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지배하였다. 이 샤머니즘은 농경시대의 유물로서 제천의식으로 제시된 원시예술에서 그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전은 샤머니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샤머니즘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저세상과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믿어지는 샤먼(shaman)을 중심으로 하는 원시 종교”이다. 사전의 샤머니즘에 대한 정의를 보다 확장해서 정의해보면, 샤머니즘은 원시종교의 형태로 샤먼을 중심으로 엑스터시 상태에서 천상, 지상, 하계, 상계를 넘나들고 천지신명계 인간들의 가호를 빌고 의식을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무속인은 무속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을 갈 수 없는 곳을 넘나들면서 무의 일을 행하고 있다.

샤머니즘의 세계관은 천상, 지상, 하계, 상계라는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샤머니즘은 천지신명에게 가호를 빌고 악귀와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을 관장하는 사람을 차차웅(次次雄), 자충(慈忠), 무(巫), 무사(巫師)라고 하였다. 이 용어들은 원시인들의 샤머니즘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대 부족국

가시대의 제정일치시대에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으므로 국가의 무(巫)격이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2대왕 남해 차차웅에 대해서 차차웅, 혹은 차차웅이라고도 한다. 김대문은 “이는 방언으로 무당을 이르는 것으로 사람들은 무당이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숭상하는 까닭에 이를 두렵게 여기고 공경하므로 드디어는 존장자를 칭하여 차차웅이라 하였다.” 즉 차차웅은 무당이며, 왕호이며, 존장자였다. 차차웅은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축무를 사용한다. 축무(祝巫)는 인간세계뿐만 아니라 신의세계까지 소통할 수 있고, 현생뿐만 아니라 전생까지 관통하며, 인간의 모든 일과 천지자연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영험적 수단으로 여겨졌다. 축무는 문학에서 신령의 전지전능을 기리는 송축사와 액귀를 물리치기 위한 주원사의 형태로 문학의 중요한 배경을 차지한다. 이러한 축무는 서사적 문학형식으로 고전문학에서 재현되고 있다.

우리민족의 원시종교는 원시시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전승된 제천(祭天)사상 등 자연숭배 사상을 포함한다. 자연숭배는 산악숭배, 수목숭배, 암석숭배 및 애니미즘(Animism), 샤머니즘 등으로 나뉜다. 수목숭배는 도처에 신목(神木), 신간(神竿) 등이 남아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서는 ‘태백산’이 등장한다. 이것은 본래 “백산(白山)”(북산)이던 것이 여기에 크다는 뜻을 덧붙여 “태백산”이 되었고 작은 것은 “소백산”이라 불렀다. 현재에도 민족의 성산(聖山)으로 “백두산”이 숭앙되고 있는 것은 이의 흔적이다. 암석숭배는 입석(立石), 거석(巨石), 기자암(祈子岩) 등이 남아 있어 그 원형의 편린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원시신앙과 친숙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종교인들과 종교인 문학연구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신과 초월성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지닌 부류의 사람들”(김용성, 「디지털시대 문학과 종교적 상상력」 49)이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자연의 삼라만상이 모두 신이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원시종교 행사인 산제(山祭), 당제(堂祭), 굿, 점복(占卜) 푸닥거리 등은 이러한 잡다한 제신들을 위로하고 그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의례이었다. 선조들은 인간의 모든 흥사가 신들을 소홀하게 대접하거나 무시해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했다.

2. 용의 집단무의식

인간의 무의식은 용의 집단무의식에서 개별적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성질을 지닌다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뉜다. 인간의 의식은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표층적 양상을 지배한다. 하지만 인간의 무의식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무의식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무의식은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으로 나뉜다. 개인무의식은 정감이 강조된 콤플렉스이다. 집단무의식은 원형(Archetypus)이다. 집단무의식은 원초적 유형, 즉 고대로부터 존재해온 보편적 상(像)을 의미한다. 집단무의식은 상징의 형태로 표시하기 위하여 집단표상이라고 말한다.

원시종족의 규범은 특수하게 변화된 형태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원시종족의 규범은 무의식이 아닌 그들의 전통적 교훈을 이룬다. 이 교훈은 비밀 교의의 형식을 빌어서 종족의 집단무의식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내용이다(용 106). 개인의 무의식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같은 개인의 과거뿐만 아니라 인류의 과거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 무의식은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재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집단무의식은 상징적 언어로 사용되고, 보편성을 띤다. 이러한 집단무의식은 고대인들의 문화와 삶에서 그에 대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원형은 의식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인 정신의 소여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집단표상이라고 한다. 원형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무의식에 잠재된 것이 의식으로 표출되어 지각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의식은 개인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의식으로 떠올라서 그 사람의 사유와 행동을 장악한다.

고대인들은 자신의 속된 것을 부정하고 의식을 승화시켜 거룩한 신령과 교감을 가졌다. 농경문화에 친숙한 고대인들은 곡식과 자연, 초목에서 의식의 승화의 원리를 탐구했다. 단군신화에서 곱은 빛이 없는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을 먹은 후에 인간이 되었다. 그 기간은 100일이었다. 이 단군신화에서는 우리 민족의 집단무의식이 의식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상징으로 드러난다. 신단수는 하

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인간들은 이처럼 신과의 소통을 하기 위하여 원형을 사용했다. 이렇듯 우리는 신화에 제시된 원형을 통해서 고대인들의 사고 체계를 이해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술과 가무를 즐기면서 삶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치유하는 승화를 터득하였다. 사람들은 매일 음주가무를 즐기므로써 황홀한 무아경의 경지에 도달하여, 신과 하나로 융합되는 것을 체험했다. 신은 자연과 인생의 지배자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신과의 직접 교감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러한 무아경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거룩한 신들과 직접 교통할 수 있었다.

고대인들은 주기적인 제천행사를 열어 음주가무를 하면서 신화적 창조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였다. 그들은 농사를 전후하여 의식을 행하였다. 이러한 종교의식은 고대인들의 신앙의 한 가지 형식이다. 우리는 이것을 샤머니즘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제례의식의 한 종류로써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신과 직접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길흉화복을 점치며 자신의 삶을 주술적으로 해결했다. 이러한 종교현상이 바로 고대인의 신앙세계이었다. 그러므로 고대인들은 속을 부정하고 성으로 승화되어 신과 교감을 나눴다. 집단무의식은 인간의 원초적 근원이며, 원형이다. 원형은 밖으로 드러난 매개물이 아니라 그 대상의 깊은 곳에 잠재된 근원이다. 고전문학의 작가들은 이러한 원형을 그들의 작품에 재현하여 재창조한다. 따라서 무의식의 원형이 고전문학작품에 어떻게 형상되어 있으며, 그것이 등장인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샤머니즘과 문학

우리민족의 고유한 원시종교인 샤머니즘은 우리 역사의 저변에서 민간신앙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종교로서의 강인한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 토착 종교로서 샤머니즘은 다른 종교가 우리나라에 새로 유입될 때마다 그 종교를 배척하기보다는 그 종교와 융합하여 새로운 사상적 발전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샤머니즘은 새로운 종교사상을 수용하여 토착화했다. 하지만 샤머니즘은 모든 중

교와 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원시종교의 고유한 사상을 잃지 않았다. 샤머니즘은 우리민족의 정신문화의 저변에 뿌리를 내리고 전승되었으며, 외래종교의 사상을 받아들여 그것과 동화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작품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많은 예술 작품의 이면을 살펴볼 때에 ‘종교성’이 문체에 깊이 자리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김용성, 『해를 품은 달과 종교』 5). 이 종교성은 민족마다 나타나는데 우리민족은 샤머니즘, 불교, 도교, 유교 등과 같은 다양한 종교를 융합하여 우리만의 고유한 정신문화를 구축하였다. 그중에서도 샤머니즘은 우리민족의 가장 오랜 된 토속종교로서 한국문화와 깊은 관련성을 맺어왔다. 우리나라의 고전시가 중에서 「구지가」, 「도솔가」, 「혜성가」, 「원가」는 무가(巫歌)적 성격이 잘 재현된 작품들이다. 그리고 『삼국지 위지 동이전』은 샤머니즘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현했다. 이러한 작품들과 자료에 제시된 샤머니즘의 사례들은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한의 농공필기와 같은 제천의식에 나타난 무격사상이다. 영고와 동맹은 고대시대에 국가의 안녕과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가 관장한 제사이었다. 이제 샤머니즘이 고전시가 작품에 어떻게 재현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1. 시가에 제시된 샤머니즘

우리민족은 옛날부터 음주가무를 즐겼던 민족이다. 각 고을에 살았던 젊은이와 노인들은 모두 노래를 즐겼으며, 함께 춤추는 것을 좋아했다. 이러한 노래와 춤은 농사가 잘되도록 하기 위한 행사이었다. 마한에서는 씨를 뿌린 다음에 한해의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관례적으로 가무를 즐겼다. 백성들은 땅을 낮게 밟거나 높이 밟으면서 곡식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주술적 행위를 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몸짓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는 농경의 풍요를 기원할 뿐만 아니라 협동심과 공동체적 유대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구려는 매년 3월 3일에 락낭(樂浪)언덕에서 왕과 여러 신하들이 참여하는 사냥대회를 열었다. 그들은 사냥에서 잡은 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신(山川神)에게 제사를 올렸다. 이런 동맹이라는 국중대회를 거행하여 고구려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의 승

1) 국중대회는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굿을 하면서 노래와 춤을 춘 행사이면서 백성들의 단

리를 동명성왕의 신화로 재현했다. 고구려 백성들이 동맹에서 부른 노래는 현재 까지 원시가요로 남아있다.

현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시가요(原始歌謠)는 「구지가」이다. 이 노래는 주술적 성격을 지닌다. 「구지가」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수록되어 있다. 『삼국유사』는 노래, 연극, 이야기 등의 샤머니즘적 내용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가락국기」(駕洛國記)의 첫머리에 나오는 「구지가」의 설화이다. 사람들은 봄이 무르익으면 부정을 쫓는 정화의례인 계욕(禊浴)의 날에 정갈히 목욕을 하고 구지봉과 같은 신령스러운 산에 올라 산꼭대기의 흠을 파며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국가의 탄생과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였다. 사람들이 이때에 부른 노래가 「구지가」이다.

龜何龜何	거북아 거북아
首其現也	머리를 내어 놓아라
若不現也	내어놓지 않으면
燔灼而喫也	구워 먹겠다 (일연 235-36)

이 「구지가」는 “영신군가”나 “구지봉영신가”라고도 부른다. 이 노래는 사람들이 신성한 동물인 거북에게 위협을 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풍요를 비는 주가(呪歌)이다. 이 노래는 샤머니즘의 전형적인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고대 가락국의 사람들은 구지봉에 모여 자신의 국가를 통치할 왕을 고대하면서 흠을 파며 이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요구를 신에게 직접 호소하지 않고, 거북에게 자신들의 기원을 말하는 주술행위를 한다. 거북은 인간들의 소원을 들은 후에 그것을 인간을 대신하여 신에게 전달한다. 이것이 모방주술이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거북에게 자신의 소원을 노래하면, 그 소원이 성취된다고 믿었다. 거북은 수호와 복, 장수를 상징하는 영물이기 때문이다.

「구지가」는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거북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매개물이 된다. 사람들은 무의식에 존재하는 국가를 통치할 “머리”²⁾인 왕이나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거북에게 요구한다. “머리”는

합을 위한 정치적 기능도 수행했을 것이라고 조동일은 주장한다(72).

집단무의식에 존재하는 원형이다. 사람들이 거북을 “구워먹는다”는 것은 의식이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집단무의식의 발현으로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기원했다.

이제는 향가의 사례를 검토해 볼 것이다. 「도술가」와 「해성가」, 「원가」는 샤머니즘의 배경이 짙게 베어 있다. 「도술가」는 신라 경덕왕 19년(760)에 월명사가 지은 4구체로 된 향가이다. 이 「도술가」의 설화는 『삼국유사』의 ‘도술가조’에 수록되어 있다. 경덕왕 19년 사월 초하룻날에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나타난 이후 10일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았다. 왕은 이러한 기이한 일을 이상하게 여겼다. 일관(日官)은 왕에게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양루로 행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왕이 청양루에서 월명사를 만나 단(壇)을 열고 계(啓)를 지으라 하여, 월명사가 이 작품을 지었다고 전한다.

오늘 이에 산화가를 부르며 뿌린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명령을 심부름하여
미륵좌주를 모셔라

今日此矣散花唱良巴寶白乎隱花良
汝隱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彌勒
座主陪立羅良 (일연 543)

「도술가」는 하늘에 해가 둘 나타난 괴변을 없애기 위한 의식에서 불린 노래이다. 단은 제사장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성하고 성스러운 장소이다. 이러한 신성한 장소에는 제사장만이 출입을 할 수 있다. 월명사는 「도술가」와 같은 노래를 불러서 하늘의 해를 물리쳤다.

이 향가에서 “산화”는 무속의 신을 공양하기 위하여 꽃을 뿌리는 일이다. 월명사는 왕 앞에서 산화가를 부르며 꽃을 뿌리면서 표면적으로는 왕에게 미래에 다가올 미륵불을 섬기라고 노래한다. 꽃은 현재에도 곳을 거행하는 장소나 무속의 신께 바치는 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꽃을 뿌리는 행위는 모든 인

2) 이 시가에서 “머리”가 거북의 머리를 의미하는지, 혹은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머리인지를 확정하는 데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후자의 관점을 취한다.

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집단무의식의 발현이다. 월명사는 왕을 포함하여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심연에 내재되어 있는 집단무의식을 꽃이라는 원형으로 의식으로 표출시키고 있다. 이렇듯 의식으로 표출된 “곧은 마음의 명령”은 표면적으로는 “미륵좌주”를 나타내고 내면으로는 무속의 신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월명사의 노랫말대로 미륵불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늘에 떠 있는 두 개의 해중에서 한 개의 해가 사라졌다.

더욱이 하늘의 해는 왕이나 부처를 상징할 수 있다. 그러나 당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고유의 민간신앙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일연이 『삼국유사』에 서술한 것처럼 하늘에서 사라진 한 개의 해는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는 왕을 포함하여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부처님을 공양하면서 살아갈 삶을 예시하는 것은 그만큼 당시 백성들이 고유한 무속의 신을 많이 믿고 있음으로 이 시를 노래하면서 미륵불을 섬기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성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해성가」는 『삼국유사』 감통(感通)편 「융천사 해성가 진평왕대」(融天師 慧星歌 眞平王代)에 실린 노래이다. 「해성가」는 신라 진평왕시대에 거열랑, 실처랑, 보동랑이라는 세 명의 화랑이 풍악으로 유람을 떠나려고 하는데 해성이 나타나서 심대성을 범하는 일이 발생한 것을 노래한 것이다.

옛날 동해 물가 건달바가 논 성을 바라보고
 왜군도 왔다 봉화를 든 변방이 있어라
 삼화의 산 구경 오심을 듣고 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켜는데
 길 쓸 별 바라보고 해성이여 사된 사람이 있구나
 아으 달은 저 아래로 떠갔더라 이보아 무슨 해성이 있을꼬
 (최철 286 재인용)

「해성가」의 배경설화는 다음과 같다. 진평왕 때에 신라와 일본 사이의 국교 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었다. 세 명의 화랑이 풍악(금강산)으로 유람을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해성이 나타나 심대성(心大星)을 범하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세 명의 화랑은 이러한 천체의 괴변이 국통에 불길한 변란을 예시한다고 생각하고 유람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구가 신라를 침략했

다. 이에, 용천사가 단을 쌓고 목욕을 한 이후에 「혜성가」를 지어 부르니, 혜성이 사라지고 왜구도 물러갔다고 한다. 임금은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크게 기뻐하여 화랑들에게 금강산으로 유람을 떠나도록 용인하였다. 용천사가 「혜성가」를 부르며 하늘에 지낸 제사는 무이다. 신라사회는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별의 괴변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민간신앙이었던 주술이었다.

「혜성가」는 향가 중에서 가장 주술적인 작품으로 원시 샤머니즘의 원형을 볼 수도 있다. 이 노래는 귀신과 하늘, 땅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고대인들의 집단무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집단무의식은 민간 저변에 흐르는 정성과 소원의 성취를 「혜성가」에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원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가」는 신라 효성왕 때에 신충이 지은 10구체 향가이다. 이 노래는 『삼국유사』의 「신충괘관조」(信忠掛冠條)에 배경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효성왕은 왕이 되기 전에 신충과 함께 궁정의 뜰에 있는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면서 훗날 그가 왕위에 오르면 신충을 잊지 않겠노라고 잣나무에 두고 맹세하였다. 하지만 효성왕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일을 잊어버리자 신충은 「원가」를 지어 잣나무에 곁었다. 그 이후에 잣나무는 누렇게 시들어 버렸다. 효성왕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신충을 등용하였다. 그러자 잣나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원가」는 주술적인 힘을 가진 노래로 「혜성가」와 같은 계열에 속한다. 왕과 잣나무가 동일시되어 은유가 되고, 잣나무에 작용하는 힘은 왕에게 작용하는 힘이 된다. 잣나무에게 인간과 같은 생명을 부여하는 애니미즘적 심리와 잣나무와 효성왕을 동일시하는 토테미즘의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

“무릇 잣나무는 가을에도 아니 시들어 너를 어찌 잊을꼬” 하시던 우러러보던
얼굴은 계시건만 옛 못의 달 그림자 가는 물살 원망하듯, 너의 모습 바라보
나, 세상은 싫어라

物叱好支栢史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 汝於多支行齊教因隱 仰頓隱面矣改衣賜
乎隱冬矣也 月羅理影支古理因淵之叱 行尸浪 阿叱沙矣以支如支 兒史沙叱望
阿乃 世理都 之叱逸鳥隱第也 (일연 574)

이 노래는 자연을 소재로 하는 잣나무, 물, 달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시의 화자는 잣나무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친구였던 효성왕을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효성왕이 왕위에 오른 뒤에 과거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찾지 않는 것을 연못에 비친 “달 그림자”에 비유하면서 효성왕을 원망한다. “달”은 인간의 의식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림자”는 집단무의식을 상징하는 원형이다. “연못”은 이 의식과 집단무의식을 연결하는 매개물이다. 화자는 “달 그림자 가는 물살”을 원망하면서 친구인 효성왕을 원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향가가 개인의 감정과 소망을 기원하는 주가로 변모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노래에서 달의 이미지는 태양의 이미지를 반영한다. 태양은 항상 똑같고 그 자체는 불변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달은 차고 기울고, 태양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체로서 생성, 탄생, 죽음을 의미한다. 달은 인간과 똑같은 운명을 지닌다. 왜냐하면 달은 인간처럼 죽음으로 생을 마치기 때문이다(엘리아데 225). 이 시의 화자는 달 이미지를 빌려와 자신의 기원을 우주까지 확장시키는 독특한 기법으로 시를 노래하고 있다.

2. 설화에 제시된 샤머니즘

무속신화에는 서사무가가 있다. 서사무가는 일련의 사건으로 구성된 서사적 구조를 가진다. 서사무가는 주인공이 무속의 신이라는 것이 다른 서사와 다른 차이점이다. 건국신화는 주인공이 국가를 건국하는 위대한 업적을 서술하지만, 서사무가는 건국신화와 다르게 무속신의 신화이다.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서 단군은 시조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과 무군(巫君)을 의미한다. 삼국시대에는 사제를 천군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호남지방에서 세습무(世襲巫)를 단골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어원이 아주 유사하다.

무속신화는 인간중심적이라는 신화상의 특징과 잘 부합되며, 현세 구복적이다. 무속의 신은 대접을 받고 나면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절대적 존재로서 무속신을 모신다기보다는 신을 이용하여 현세의 복을 구하려는 것이 무속의 기본적인 방식이다. 서사무가는 무속신의 유래담

이다. 이러한 서사무가는 예상신이 어떤 탁월한 공적을 세워서 인간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제 서사무가의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리공주』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천도하는 사령무제에서 구현되는 무속신화로서 “바리데기,” “칠공주,” “오구풀이” 등의 다른 명칭을 갖고 있다. 『바리공주』는 오구굿 계통의 무속제의에서 불리지는 서사무가이다. 오구굿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바리공주』에서 바리공주는 사령신의 역할을 한다.

옛날 어느 왕이 여섯 공주를 출산했다. 왕비는 일곱째도 낳고 보니 역시 공주였다. 대왕은 크게 노하여 일곱째 공주를 강물에 띄워 버린다. 그러나 버려진 아기는 석가세존의 지시로 어느 촌가의 늙은 부부에 의하여 구출되어 양육된다. 바리공주가 십 오세 되었을 때 대왕마마가 병이 들었는데 아기를 버린 죄로 승하하게 되었다며 살아나기 위해서는 버린 아기를 찾아서 신선계의 약수를 구해다가 먹어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버린 아기 공주를 찾으라는 왕명이 내려진다. 바리공주는 만조백관과 여섯 언니가 거절한 구약의 길을 남복을 입고 혼자 떠나서 저승 세계에 이르러 많은 원령을 천도하고 신선세계에 이르러 무장신선을 만나 약물 값으로 나무하기 삼년, 물 길기 삼년, 불 때기 삼년의 9년 동안 일을 해주고 무장신선과 결혼하여 아들 일곱을 낳아준 뒤 약수를 얻어 가지고 남편과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 이때 왕과 왕비는 이미 승하하여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바리공주가 상여를 멈추게 하고 약수와 약꽃으로 부모를 회생시킨다. 왕은 살아나서 바리공주의 소원을 들어 만신의 왕이 되게 하고 무장신선은 망자가 가는 길에 노제를 받아먹게 하고 일곱 아들은 저승의 십대왕이 되게 한다. (서대석 106-07)

서사무가에서 무속의 신은 건국신화의 주인공처럼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험난한 시련을 겪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한다. 바리공주의 삶은 영웅들의 삶과 부합되는 구조로 이 설화에 구성되어 있다. 바리공주는 고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났으나, 부모로부터 어려서 버림받았다. 하지만 바리공주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마침내 위대한 업적을 세운다. 이 설화의 주제는 자기희생을 통한 효의 실천이며, 이는 설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주제이다.

『바리공주』는 중남사상(重男思想)이 지배하던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녀가 늙은 부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효를 실행한다는 효사상을 근간으로 구성된 설화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렸어도 자식은 부모를 죽을 때까지 공양해야 된다는 것은 한국전통 사회를 지배하던 사회적 통념이었다. 바리공주의 삶은 우리민족의 효사상이라는 집단무의식으로 발현된다. 이 설화는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샤머니즘적 정황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샤머니즘은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문학작품의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당금애기』는 제석본풀이라고도 한다. 이는 당금애기가 지역에 따라 명칭을 다르게 말하기 때문인데, 다른 제목으로 불리어진 것은 이 서사무가가 전국적으로 널리 전승되었음을 입증한다. 『당금애기』도 서사무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옛날에 아름다운 딸아기를 둔 어느 한 명문의 가정이 있었는데 가족들은 불가피한 일로 집을 떠나고 딸아기만 남아 있게 된다. 이때 범술이 높은 스님이 딸아기가 인물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시주를 받으며 수작하고 사라진 후 딸아기는 잉태하게 된다. 가족들이 귀환하여 이 사실을 알고 딸아기를 추방하자 딸아기는 아들 삼형제를 출산하고 스님을 찾아가서 삼신이 되고 제석신이 된다. (서대석 109)

위의 내용을 보면 이 서사무가에서는 본래의 모습은 무속의 생산신 신화로서 한국의 고대 건국신화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천부지모형의 신화였으리라고 본다(서대석 109-10). 당시의 선인들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과 죽음에 대한 것은 신성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보니 생산신의 신화가 널리 분포되는 양상을 보인다. 생산신은 영웅의 일대기와도 비슷하다. 영웅은 태어날 때는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지만, 자라면서 수난을 당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고난을 거친 다음에 행복한 결말로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당금애기』는 부모가 다른 곳에 가고 안 계실 때 스님의 아기를 잉태하면서 정든 집을 떠나게 되는 시련을 겪는다. 이 무속의 생산신을 널리 지역마다 전승되고 불리어 졌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에 트랜드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바리공주』와 함께 우리나라에 가장 널리 전승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가 가장 널리 전승된 이유는 서

사무가의 출발점이 되는 생산신의 신화이기 때문이다. 출생과 사망은 우리의 선인들은 인간이 겪어야 할 통과의례 중의 하나이다.

『당금애기』에서 스님이 떠날 때에 딸아기에게 신물을 주고 간 것이 ‘박씨’였다. ‘박씨’는 고전문학의 작품에 등장하는 매개물이기도 하다. 스님은 딸아기에게 쌀 세알을 먹게 해서 아이를 잉태시킨 것은 일종의 도술이다. 이와 비슷한 것은 주몽신화에서 유화가 태양빛에 의해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유사하다. 『당금애기』는 우리나라의 신화에서 토대를 두고 창작된 서사무가들 중의 하나이다. 요컨대 『바리공주』와 『당금애기』는 우리민족의 고유한 집단무의식이 서사무가의 형태로 기록된 설화들이다. 이 설화들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의 집단무의식의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3. 고소설에 제시된 샤머니즘

우리문학의 고소설에는 원시종교사상으로 정령숭배사상과 같은 샤머니즘이 도처에 나타나 있다. 한국의 샤머니즘은 개인보다 이웃과의 공동체적 삶을 강조한다. 샤머니즘은 인간위주의 신앙이다. 그래서 샤머니즘에서 무력의 기능은 사제자, 점복예언자, 예능오락, 신화전승으로 나뉜다. 『인현왕후전』에서 주술은 인간이 초자연의 힘을 빌려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서술한다. 이 주술은 방위주술과 대항주술로 나눌 수 있다. 방위주술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주술이다. 이 사례는 동지에 팔죽을 쑤어 문이나 벽에 뿌림으로 잡귀의 내침을 방지하고자 했던 일이다. 대항주술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주술이다. 이 사례는 병자가 발생했을 때에 무속인을 불러서 곳을 하든지, 곳을 하며 무력으로 치는 시늉을 하여 잡귀를 쫓아내는 의식이다. 이제 고소설에 나타난 샤머니즘적 요소를 알아보려고 한다.

『한중록』은 1795년(정조 19년)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가 지은 회고록이다. 비록 회고록이지만 고전문학 작품임으로 고전소설문항으로 넣어서 다루고자 한다. 『한중록』은 필사본 14종이 있으며, 국문본·한문본·국한문혼용본 등이 있다. 사본에 따라 『한동록』, 『한동만록』, 『읍혈록』 등의 이칭이 있다. 『한중록』에는 의무(醫巫)가 등장한다. 의무는 의약으로 고칠 수 없는 위중한 병에 걸

린 병자를 영험한 능력을 빌어 치유한다. 『한중록』은 과거에 민간신앙이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 것을 보여준다.

그히 구월 간의 병환이 더단이 드오서 진퇴 무상하니 그리 비경 호실제 엇지
문복지 아나시리오 무복의 말이 여출입구호야 저승 겨오신 히라 호야 세간을
기우려 신스기도 독경부치를 만히 호디 닛디 아니호오시니
(『한중록』 112)

한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해서 복용해도 그 병이 완쾌되지를 앓고 나날이 심해졌다. 어느 날 그 동네사람은 그 병자에게 “문복지,” 즉 무당에게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병을 치유해 보라고 충고를 한다. 그 병자는 ‘문복’에게 자신의 병이 어떤지를 물어보니, 무당은 이 병자를 보고 이렇게 있다가는 곧 죽을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당은 그 병자가 죽지 않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세간을 기우려 신스기도 독경부치를 만히 호디” 병이 완쾌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한중록』은 우리민족이 불치병을 치유하는 집단무의식을 재현했다.

고소설에는 『한중록』처럼 샤머니즘적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부적을 이용해서 액을 예방하려는 행위는 고대시대부터 지금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사용된 민간신앙이며 주술이다. 사람들은 글씨와 동물모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문양과 그림을 그려서 병이나 잡귀를 막았다. 사람들은 이러한 부적을 대문이나 문지방에 붙이거나 자신의 몸에 간직했다. 이처럼 부적은 아주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고소설은 악인과 결탁한 요무의 양상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홍길동전』에서 초란이는 무녀와 여러 가지 계교를 꾸민다. 초란이는 길동이가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길동이를 죽이려고 무녀의 힘을 이용한다. 『김인향전』에서 무녀는 전처자식을 죽이려는 계모 정씨의 흥계를 돕는다. 궁정문학 혹은 궁정소설로 일컬어지는 『인현왕후전』에서 무녀는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하여 악독한 술책을 자행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요무(妖巫)가 저주를 자행하는 것을 서술한 작품은 작자의 의식이 대체로 무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척좌사상에 기울어져 있다.

고소설에서도 간간이 부주, 혹은 부적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구운몽』에서 샤머니즘적 요소를 찾아보고자 한다.

장녀랑의 소리러라 울며 왈, “고이훈 도스의 말 듯고 첩을 오지 못하게 하니 엇지 박결하니잇가?” 한님이 대경하야 문을 열고 왈, “엇지 들어오지 못하리오?” 녀랑이 왈, “나를 오게 하면 어이 부적(符籍)을 머리에 부쳤는잇가?” 한님이 머리를 문져보니 과연 축귀 부적이러라. 한님이 대분하야 부적을 열과 하고 내들아 녀랑을 잡으려 한 대, 녀랑이 왈, “나는 일노 조츠 영결호오니 낭군은 옥체 안보호옵소셔”하고, 울며 담 너머 가니 붓드지 못홀나라. 적적공방의 혼자 누어 줌도 일우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니 즈연 병이 되어 형용이 초고 하더라. (『김인향전』 420)

장녀랑이 울며 한님에게 “이훈 도스의 말 듯고 첩을 오지 못하게 하니 엇지 박결하니잇가?”라고 말한다. 한림이 크게 놀라 문을 열고 “엇지 들어오지 못하리오?”라고 말한다. 장녀랑이 한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은 한님의 머리에 부적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적은 도술을 행하는 도사가 한님이 알지 못하게 그의 머리에 부적을 붙여 놓았기 때문이다. 한님은 자신의 머리에 붙어 있는 부적을 만져보고 대노한다. 장녀랑은 낭군의 머리에 붙은 부적을 보고, 낭군에게 “나는 일노 조츠 영결호오니 낭군은 옥체 안보호옵소셔”라고 말하고 사립문 밖으로 도망을 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 한님은 장녀랑이 그의 곁을 떠난 이후에 식음을 전폐하고 큰 병에 걸린다. 이처럼 부적은 장녀랑이 낭군의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 이후에 한님은 큰 병에 걸려서 집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 이제는 한님이 부적을 사용해서 다른 여자를 쫓아내는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성이 왈, “형이 으려즈 ㄹ치 붓그러 하느뇨? 형이 두견인의 말을 씨쫓지 못하거늘 축귀 부적을 형의 상토 밋터 너코 그날 밤의 쫓밭 소귀 안즈보니, 엇던 계집이 울며 창 밖기 와 하죽하고 가니 두견인의 말이 그르지 아니홀지라. 혼대, 한님이 괴이지 못하여 왈, “소지 과연 괴이훈 일이 잇느니라.” (『김인향전』 420)

정생이는 형이 병이 들어 집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두진이의 말을 형에게 전해준다. 두진이는 도사이다. 도사는 정생이에게 그의 형이 “축귀 부작”을 “상토 밧티 너코” 잠을 자면 그 날 밤에 어떤 계집이 창 밖에 와서 형에게 하직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한님은 동생의 말대로 “축귀 부작”을 상토 밑에 넣고 기다려보니, 한 밤중에 어떤 여자가 창밖에 나타나서 그에게 하직인사를 올리고 사라졌다. 한님은 이러한 괴이한 일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축귀부작”을 사용해서 악귀를 쫓아 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집단무의식의 제현이다.

또한 무주(巫呪)는 샤머니즘적 기능을 한다. 무주라 함은 무당을 통해서 기복을 비는 것을 말한다. 무속에는 점복신앙의 기능이 있다. 점복은 어떤 원인을 통하여 결과를 아는 기술이며, 때로는 어떤 결과를 통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는 기술이기도 하다.

이러한 무격들은 백성들의 인지가 발달하고, 특히 중국으로부터 성리학을 비롯한 고도의 문물이 전래됨에 따라 문신과 유신 등 지식계층으로부터 흑세무민(惑世誣民)의 요무(妖巫)로 가혹한 학대를 받았다. 조선시대에는 송유정책의 시행으로 무격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 시대에 사대부들은 불교의 스님들과 요무를 퇴치하려고 부심하였다. 그래서 무격들은 필사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무녀들의 음사(淫祠)를 금지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김인향전』은 무녀 출신의 노파를 흑세무민하는 존재로 매도한다.

부사대로왈무녀는본시흑세무민하는것이스위가불측거허든허물머못된흉계를
내어돈을밧고사람을들식이나죽였으니네엇지살기를말아리오너무대경하여엇
자오되정씨가전실자식을해코자하와이늘근것다려계교을못삼기에 (『김인향전』
48)

무녀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미천한 함을 토로한다. 정씨는 전실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무녀를 이용한다. 무녀는 정씨부인에게 “돈을 밧고,” “못된 흉계”를 꾸며서 정씨부인의 전실 자식을 두 명이나 죽였다. 이처럼 무녀들은 사회를 흑세무민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무당은 조선시대에 팔천(八賤)의 하나로

취되어 꾸준히 사회적 냉대를 받았으면서도 은연중에 대중과 영합했다.

조선 후기에 근대적 자각에 눈을 뜬 실학자들은 무격을 더할 나위 없이 혹세 무민의 요사(妖邪)한 존재로 인식했다. 『운영전』은 무당을 요사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우연히 동문밖사는 영험하기로 일흠이 높흔 무녀가 잇스니 수성궁의 출입하야 대군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엇다 그리하야 무녀를 식혀 답서를 전하랴고 었던날 진사가 무녀의집을 심방하엿다 무녀는 나히가 삼십에 각거왓스나 자색이 슈미하다 그러나 일즉이 과부가되야 춘정을 조와하는 색녀의 성질이 잇다 진사가 심방하매 자기가 친히 나가서 성심으로 주찬을 갖추어서 진사의 호기심을 어드라한다. (『운영전』 261)

김진사는 “수성궁”에 살고 있는 궁인 운영을 만나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운영을 만나기 위하여 삼엄한 대궐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무녀를 통해서 그녀를 만나려고 한다. 그는 대군의 총애를 받고 있는 무녀의 집을 방문한다. 무녀는 과부이며, 자색이 수려하고 색녀의 기질이 있다. 그런데 무녀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김진사에게 “성심으로 주찬”을 차려서 그를 유혹하려고 한다. 김진사는 이러한 무녀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다. 이렇듯 『운영전』은 무녀를 색녀에 비유하여 무녀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비경이 그운을 비금하야 금련 부용 보련이 모다 계속하야 운영을 희롱한다 운영은 말을 타고 먼저 무녀의 집으로 가니 무녀는 원한을 품었는지 박글향하야 안저 도라도보지도 아니하고 진사는 라삼을 부여잡고 종일 울어서 상흔 실성하야 운영에 도라움도 모르는 모양이다 (『운영전』 270)

김진사와 궁인 운영은 첫 눈에 반하여 서로 사랑하게 된다. 운영은 안평대군을 모시는 궁인이므로 궁궐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이 김진사를 사랑하는 것이 동료 궁인들에게 알려진다. 그래서 “비경,” “금련 부용 보련”이라는 운영에게 김진사와의 사랑을 “희롱”한다. 하지만 이 궁인들도 운영이 김진사를 만나도록 도와준다. 운영은 결국 그들의 도움으로 무녀의 집에서 김진

사를 만나게 된다. 하지만 무녀는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김진사를 외면한다. 이는 김진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운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 김진사는 운영이 자신을 만나려고 무녀의 집에 온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운영전』의 무녀는 매정한 사랑에 원한을 품은 악의 화신으로 등장한다. 고전소설에서 샤머니즘에 대한 원형은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드러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샤머니즘이 정리가 되어있는 종교와는 달리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종교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샤머니즘의 발현은 곳곳에 재현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녀들이 사회를 흑세무민하는 일이 벌어지자,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미신타파 정책을 펴서 무격이 설 곳을 잃게 만든다. 이러한 정황들은 신소설에 그 양상이 재현되어 있다. 백성들의 신소설에서 무녀들은 악인으로 등장하며, 철저히 직업적인 인물들이다. 이러한 샤머니즘은 저급문화로 치부되어 배척을 받기도 하지만 초월적 현상이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원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 쉽사리 위축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샤머니즘이 더욱 번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IV. 나오는 말

지금까지 원시종교인 샤머니즘이 어떻게 우리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었으며, 그 문학작품에 어떻게 재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시기는 샤머니즘적 경향이 많이 묻어 있다. 고대시대의 동맹, 영고, 무천 등의 제천행사는 샤머니즘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다. 원시가요인 「구지가」는 집단 주술적 성격을 띠었다. 향가인 「도솔가」, 「혜성가」, 「원가」에도 다양한 샤머니즘적 경향이 드러났다. 이러한 작품들은 우리민족의 고유한 집단무의식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원시가요와 향가뿐만 아니라 설화와 고대소설에도 원시종교의 샤머니즘 경향이 제시되어 있었다. 서사무가인 『당금애기』와 『바리공주』는 무속신화를 제시하여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 같이 무속신화는 서사문학의 대표적인 양식

인 소설을 탄생시키는데 기여했다. 고소설에서 민간신앙은 유교, 불교, 선불교 사상과 더불어 샤머니즘의 형태로 소설의 제재를 형성했다. 특히 동양의 삼대사상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전통 원시종교와 통합되어 조화로운 발전을 하는 것이 고소설에 반영되었다. 고소설에 제시된 샤머니즘은 사제자, 무의, 점복, 예언자, 예능, 오락, 신화전승의 기능을 했다.

조선시대의 고소설에는 무당의 기능이 악인과 결탁하는 요무양상이 재현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유교사상을 지닌 사대부들이 무녀를 혹세무민하는 무리로 가혹하게 학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더욱이 신소설에서는 무녀를 악을 실행하는 요녀의 무리로 더욱 격하시켰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 대대적인 미신타파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민족의 집단무의식으로 존재하는 샤머니즘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도 우리민족의 정신의 일부분을 지속적으로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의 샤머니즘은 한국문화의 형성과 문학발전에 기층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우리의 정신문화에 깊숙이 베어 집단무의식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국문학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 원시종교의 집단무의식을 도외시 할 수 없다. 더욱이 샤머니즘은 앞으로도 우리의 의식구조 속에 잠재되어 지속적으로 집단무의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무속(巫俗)이 현대의 과학적 사고와 역행되는 미신적 관습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선입견이 작용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전통문화와 기층종교현상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무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선대학교>

Works Cited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서울: 지식산업사, 1982.
 [Cho, Dong-Il. *Korea Literature Syntax*. Vol. 1. Seoul: Jisiksanupsa, 1982. Print]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0.
 [Choi, Cheol. *The Literary Interpretation of Hyanggas*. Seoul: Yonsei UP, 1990. Print]
 엘리야데, M. 『성과 속』. 이은봉 옮김. 서울: 한길사, 1957.

- [Eliade, Mircea.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Trans. LEE Eun-Bong. Seoul: Hangilsa, 1957. Print.]
- _____.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서울: 한길사, 1978.
- [_____. *Religious Morphology*. Trans. LEE Eun-Bong. Seoul: Hangilsa, 1978. Print.]
- 『김인향전』.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6.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活字本)古典小說全集』 2.
- [*Giminhyangjeon*. Seoul: Asiamunwhasa. 1976. Print. Studies in Korean Literature in Dongguk U. The Complete Works of (Hwaljabon) Gososeol 2.]
- 『구운몽』.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편).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6. 민족문화연구소. 『한국고전문학전집』 27.
- [*Gunmong*. Ed.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in Korea U. Seoul: Korea UP, 1996. Print.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The Completed Works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27.]
- 혜경궁 홍씨. 『한중록』. 전규태 옮김. 서울: 서문당, 1996.
- [Hong, Lady Hyegyong. *Hanjungrok*. Trans. JEON Kyu-Tae. Seoul: Seomundang, 1996. Print]
- 일연. 『三國遺事』. 김봉두 옮김. 서울: 敎文社, 1995.
- [Il-Yeon. *Samkoomyusa*. Trans. KIM Bong-Do. Seoul: Gyomunsa, 1995. Print.]
- 윤, C. G. 『원형과 무의식』. 용번역위원회 옮김. 서울: 솔 출판사, 2003.
- [Jung, Carl Gustav. *Archetyp und Unbewubtes*. Trans. Jung Translation Committee. Seoul: Sol, 2003. Print.]
- 김용성. 「디지털시대 문학과 종교적 상상력」. 『문학과 종교』 20.2 (2015): 45-63.
- [Kim, Yong-Sung. “Literature and Religious Imagination in the Digital Age.” *Literature and Religion* 20.2 (2015): 45-63. Print.]
- _____. 「해를 품은 달과 종교」. 『문학과 종교』 19.2 (2014): 1-23.
- [Kim, Yong-Sung. “*The Moon Embracing the Sun* and Religion.” *Literature and Religion* 19.2 (2014): 1-23. Print.]
- 서대석. 『한국의 무속문화』. 서울: 박이정, 1998.
- [Seo, Dae-Seok. *Korean Musok Culture of Korea*. Seoul: Bakyijeong, 1998. Print]

한국고전문학과 샤머니즘

국문초록

유옥례

샤머니즘은 양자역학처럼 현대과학이 고도로 발달하여 물질의 미세한 부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시대에도 시민들의 정신문화를 사로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샤머니즘은 원시종교의 형태를 띠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며 무의식의 원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샤머니즘은 각 개인의 무의식적 원형으로써 고대시대부터 무수한 작품의 제재로 사용되어 시가, 설화, 고소설의 작품에 재현되었다. 문학적 제재로 사용된 샤머니즘은 원시가요인 「구지가」는 집단 주술적 성격을 띠었다. 향가인 「도솔가」, 「혜성가」, 「원가」에도 다양한 샤머니즘적 경향이 드러났다. 서사무가인 『당금애기』와 『바리공주』는 무속신화를 제시하여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 같이 무속신화는 서사문학의 대표적인 양식인 소설을 탄생시키는데 기여했다. 고소설에서 민간신앙은 유교, 불교, 선불교 사상을 샤머니즘 형태의 소설의 제재로 형성했다. 샤머니즘은 악인과 결탁한 요무의 양상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신은 성과 속의 두 가지 양면성을 가졌다. 요컨대 샤머니즘은 한국인의 정신문화와 문학의 발전에 기층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생명력을 갖고 우리의 정신문화의 일부분으로 지속되고 있다.

주제어

샤머니즘, 시가, 설화, 소설, 원시종교, 집단무의식

Manuscript Peer-Review Process

Receipt Acknowledged: July 31, 2015

Revision Received: Sept. 6, 2015

Publication Approved: Sept. 30, 2015